

야생화 개발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산 자원 식물조사

길봉섭, 유현경, 김병삼, 김영식¹, 김창환²원광대학교, 원광보건전문대학¹, 이리농공전문대학²

전라북도 지역내에 흩어져 분포하고 있는 야생초목화를 개발하기 위한 자원식물을 조사 하였다. 장차 이들로부터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품종을 개량할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그 유전 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실험결과 봄철에 꽃피는 식물은 131종류(전체의 34.7%), 여름에는 219종류(57.9%), 가을에 26종류(6.9%) 그리고 겨울에는 2종류(0.5%)이었고, 봄부터 겨울까지 피는 꽃의 색깔은 모두 26종류로 다양했으며 가장 많은 꽃색은 백색으로 전체의 28.8%, 그다음은 황색 20.6%, 자주색 16.4%, 홍자색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 지역별로 많이 심고 있는 야생화는 애기똥풀, 원추리, 붓꽃, 산철쭉, 진달래, 할미꽃, 구절초, 민들레, 산국, 맥문동, 석산 등을 들 수 있다. 야생하고있는 식물을 채취하여 그대로 시판하고 있는 식물은 26종류로 조사되었는데 보춘화, 원추리, 석산, 구절초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우리나라 야생화를 외국에 반출당하지 않고 개량하여 우수상품으로 만들 대상으로는 총 343종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중 국화과 식물 41종류, 장미과 25종류, 백합과 20종류 그리고 미나리아재미과 18종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는 창포, 광릉요강꽃, 개불알꽃, 새우난초, 금낭화, 호랑가시나무, 노각나무, 미선나무, 산개나리, 자주꽃방망이 등이다. 이들은 식물수가 격감되어서 희귀상태이거나 멸절위기 또는 학술상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는 식물분포상 남방인자와 북방인자가 섞여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야생화 자원식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